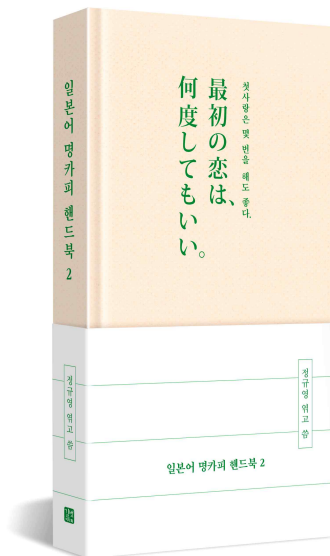


最初の恋は、何度してもいい。
첫사랑은 몇 번을 해도 좋다.

일본어 명카피 핸드북 2



도서 정보

저자 · 정규영 | 정가 · 18,000원 | 발행일 · 2026년 7월 1일
페이지 · 220쪽 | 판형 · 100*180 | 부록 · 낭송 음원 QR
ISBN · 979-11-407-1874-0 03730 (길벗 도서번호 301234)

카테고리 분류

- 국내도서 > 외국어 > 일본어회화 > 비즈니스일본어
- 국내도서 > 인문 > 독서/글쓰기 > 글쓰기 > 글쓰기일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마케팅/광고/고객 > 광고/홍보/브랜드
- 국내도서 > 자기계발 > 자기능력계발 > 아이디어/창의성
- 국내도서 > 국어 외국어 사전 > 일본어
- 국내도서 > 국어 외국어 사전 > 일본어 > 일본어 독해/문법/작문/번역
- 국내도서 > 에세이 > 한국에세이
- 국내도서 > 경제 경영 > 마케팅/세일즈
- 국내도서 > 인문 > 인문/교양 > 인문에세이
-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언론/미디어 일반
-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광고

편집 담당 · 성인어학팀 박정현(bonbon@gilbut.co.kr | 02-330-9847)

#일본어 #명카피 #일본어독해 #카피 #일본광고 #광고 #카피라이팅 #카피 #카피라이터 #정규영
#광고카피 #일본어필사 #직장인 #감성 #자연스러운일본어 #감동 #현지일본어

책 소개

<일본어 명카피 핸드북> 후속작 출간!
인생 · 일상 · 일 · 용기 · 사랑,
다섯 가지 테마로 다시 만나는 일본어 명카피 200선.

광고 카피로 일본어를 배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받은 <일본어 명카피 핸드북>의 두 번째 이야기, <일본어 명카피 핸드북 2>가 출간됐다. 이번 책 역시 일본 광고 명카피 200편을 엄선해 담아, 문장을 읽는 즐거움과 일본어의 섬세한 표현을 함께 전한다.

이번 책 역시 TCC(Tokyo Copywriters Club) 연감 30여 권에서 200편의 명카피를 엄선해 담았다. 현직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저자 정규영 씨가 직접 카피의 배경과 의도, 시대적 맥락, 그리고 일본어 표현의 미묘한 뉘앙스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다. 단순한 번역을 넘어, 왜 이 표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까지 함께 설명해 일본어와 카피라이팅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광고 카피는 짧지만 강렬하고, 일상 속 살아 있는 언어로 만들어진다. 덕분에 일본어 학습 자료로도 뛰어난 장점을 가진다. 일본어를 잘 모르는 독자라도 친절한 해설을 통해 원문의 감동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광고에 담긴 문화적 배경과 시대 감각까지 함께 접할 수 있다. 도서는 ‘인생’, ‘일상’, ‘일’, ‘용기’, ‘사랑’이라는 다섯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카피를 구성해, 독자들이 자신의 현재 마음과 닿는 문장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저자 정규영 씨는 “효율과 성과가 우선되는 시대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의 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며 “지름길에서는 지나쳤을지 모를 다양한 생각과 시선을 발견하며, 그 시간들이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목차

- Part 1. 인생
- Part 2. 일상
- Part 3. 일
- Part 4. 용기
- Part 5. 사랑

저자 소개

역고 쓴 이_정규영

저자 정규영은 30년 가까이 광고를 만들어 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다. 어느 날 그는 1980년대 일본의 국민 아이돌, 마츠다 세이코의 노래에 푹 빠져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다. 교재는 다름 아닌 일본 광고 카피! 각종 카피 관련 사이트를 들락날락하고, 일본의 고서점에서 수십 년 치의 광고 카피 연감을 구매하며 카피를 모았다. 이후 직접 번역한 카피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브런치에 글을 쓰며 활동하고 있다.

- (주)씨세븐플래닝즈 대표 겸 (주)렛잇플로우 이사
-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겸임교수
- 직접 카피를 쓴 광고가 대한민국광고대상 특별상,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광고학회 선정 올해의 광고상, 대한민국광고대상 우수상, 미국 Questa Awards 동상 등 국내외 광고제 다수 수상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인스타그램 @qy.jung

브런치 @gounsun

저서

<일본어 명카피 필사 노트> (길벗이지톡)

<일본어 명카피 핸드북> (길벗이지톡)

<하루 카피 공부> (유유)

<한 줄 카피> (포르제)

감수자 소개

감수 후지이 와카나(藤井和佳奈)

감수를 맡은 후지이 와카나는 대학 졸업 후, 광고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며 일본의 광고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현장을 가까이에서 접했다. 현재는 일본어 강사로 활동하며, 학습자들이 '문화로 일본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상 속 일본어 표현과 감각적인 문장을 소개하며 소통하고 있다.

- 現 매일 일본어·시원스쿨 일본어 대표 강사
- 前 GAVA 플러스어학원 강사
- 前 도쿄 광고회사 영업 부서 근무
- 도쿄 쇼와여자대학 졸업

인스타그램 @nihongo_kr

저서

<GO! 독학 일본어 일상 표현 222> (시원스쿨)

<GO! 독학 일본어 상황 표현 222> (시원스쿨)

No.81

작년의 교훈 :
쉬지 않으면, 쉬게 된다.

昨年の教訓：
休まないと、休まれる。

마이트립넷(현 라쿠텐 트래블) 신문 광고 (2005)

여행사 광고가 여행을 권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설레는 사진도, 특가 항공권의 유혹도 없습니다. 대신 지난 한 해의 교훈 하나를 슬며시 내밉니다. 스스로 알아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이나 상황이 강제하는 '휴식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 이 카피에 공감하게 되는 것은 뻔한 교훈의 내용이 아니라 같은 글자(休ま-)로 시작하는 동사의 부정형과 수동형을 나란히 배치해 간결하게 대비시킨 센스 때문입니다. 休まれる는 休む의 수동형입니다. 단순한 피동을 넘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피해의 뉘앙스가 담겨 있죠.

昨年(さくねん) 작년 | 教訓(きょうくん) 교훈 | 休(やす)む 쉬다
~ないと ~하지 않으면 | 休(やす)まれる 쉬게 되다(休む의 수동형)

095

-> 문장번호

-> 해석

-> 원문

-> 출처

-> 광고+일본어 설명

-> 단어

->페이지 넘버

책 속으로

No. 1

어서 오렴,

너는 음악이 있는 별에 태어났단다.

ようこそ、

キミは音楽のある星に

生まれたんだよ。

소니 TV 광고 (1989)

아침에 눈을 뜨면 이어폰을 꽂고, 출퇴근길에도, 잠들기 전에도 늘 음악이 곁에 있습니다. 당연하게 공기처럼 누리고 있지만, 오랫동안 음악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었죠. 소니의 워크맨이 등장하며 음악은 비로소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음악이 없는 세상, 상상만 해도 숨막히지 않나요? 이 카피는 그 당연한 행복을 일깨워줍니다. ようこそ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라는 뜻의 인사말로, 손님이나 방문자를 맞이할 때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 Part 1. 「인생」中

No. 43

총리나 대통령이 바뀌는 것보다

앞머리 1mm에 내 세상은 바뀐다.

総理大臣や大統領が変わるより、

前髪1ミリで

わたしの世界はかわる。

WARP 헤어 크래프트 포스터 (2013)

정치 지도자가 바뀌는 뉴스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 만, 정작 나의 일상은 전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내 피부에 와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못 느낄 때도 많죠. 그런데 미묘하게 마음에 안 드는 앞머리 1mm는 나의 기분과 하루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이 두드러지는 일본에서 공감을 받은 이 카피는 지역의 한 미용실 체인이 만들었습니다. 前髪는 한자 그대로 ‘앞머리’를 말합니다. ‘뒷머리’는 後の髪, ‘옆머리’는 横の髪 혹은 サイドの髪라고 부릅니다.

--- Part 2. 「일상」中

No. 81

작년의 교훈 :

쉬지 않으면, 쉬게 된다.

昨年の教訓 :

休まないと、休まれる。

마이트립넷(현 라쿠텐 트래블) 신문 광고 (2005)

여행사 광고가 여행을 권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설레는 사진도, 특가 항공권의 유혹도 없습니다. 대신 지난 한 해 의 교훈 하나를 슬며시 내뱉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이나 상황이 강제하는 ‘휴식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 이 카피에 공감하게 되는 것은 뻔한 교훈의 내용이 아니라 같은 글자(休ま~)로 시작하는 동사의 부정 형과 수동형을 나란히 배치해 간결하게 대비시킨 센스 때 문입니다. 休まれる는 休む의 수동형입니다. 단순한 피 동을 넘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피해의 뉘앙스가 담겨 있죠.--- Part 3. 「일」 中

No.148

하루가 계속 밝기만 했다면,

사는 게 더 힘들었을걸?

一日がずっと明るかったら、

生きてるの、

もっとタイヘンだったかもね。

맥도날드 웹 광고 (2024)

광고에는 두 여고생이 등장합니다. 시험을 망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훌쩍이는 학생에게 말없이 감자 튀김을 건네는 친구가 있어 큰 위로가 됩니다. 시험공부뿐 아니라 회사 업무, 인간관계 등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줄 밤 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계속’이 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장음 기호를 넣어 ずっと로 표 기한 것과 ‘힘들다’는 의미의 大たい変へん 을 가타카나(タイヘン) 를 이용해 부각시킨 것이 눈에 띄네요. ~ね는 문장 끝에 붙여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하는 뉘앙스를 만듭니다. 일상 회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죠.

--- Part 4. 「용기」 中

No.197

부모, 연인, 친구.
피부로 접한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이 된다.
両親、恋人、親友。
肌で触れた人たちは、
大切な人になる。

우르오스 포스터 (2009)

우리는 흔히 소중한 사람이기에 가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카피는 인생의 다른 면을 가리킵니다. 가까 이 했기 때문에 소중한진다고요. 스킨케어 브랜드답게 ‘피 부’를 가리키는 肌를 통해 관계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肌는 우리 몸에 있는 물리적인 ‘피부’도 가리키지만, 한국 어와 마찬가지로 肌で感じる(피부로 느끼다)처럼 무언가 를 직접, 깊이 체험한다는 관용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 Part 5. 「사랑」 中